

가마골 선교회의 노인선교이야기

용 석 천(목사, 강원 횡성 가마골선교회장)

1. 가마골 선교회의 설립 배경

가마골 하면 사람들은 가마를 걸고 도자기를 굽는 어느 골짜기가 아니냐고 묻는다. 그러나 가마골은 도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산골 마을 이름이다. 가마골은 치악산 뒤 편 해발 500미터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인데 마치 가마솔처럼 생긴 분지(盆地) 형태의 마을이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행정 명칭은 가마 숲 자와 골 숲 자를 써서 부곡리라고 부른다.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가 바로 가마골이다. 가마골 선교회는 이 가마골에서 시작되었기에 그 이름을 가마골 선교회라고 지었다.

가마골은 강림면 소재지에서 자동차로 비포장 도로를 20여분 이상 들어가야 한다. 면 소재지를 벗어나 인가도 없는 산길을 따라 한참을 가면 깊은 산 속에 의외로 넓은 분지가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가마골이다. 주민들의 수는 200여명 되는데 거의 대부분 노인들이다.

나는 1990년 가마골에 있는 부곡교회에 부임을 하였는데 20여 명에 불과한 교인들 역시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함께 농사

도 짓고, 결혼, 회갑, 장례와 같은 애경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마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가게 되었다. 몇 해를 지나자 나는 마을 사람들의 사정을 대부분 알게 되었다. 특히 마을 노인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내셨는가에 대하여 듣고 또 듣게 되었다. 마을 노인들은 나를 만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셨다. 어떤 때는 한스러움으로, 어떤 때는 허무한 마음으로,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셨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래서 다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분들은 나를 만나면 처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열심히 말씀을 하시곤 했다. 그러면 나도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요?”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곤 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성의를 다해서 들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노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특히 아무 가족도 없이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무의탁 노인들이 내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명절, 생일, 어버이날이 돌아와도 그 분들은 늙고 병든 몸으로 쓸쓸하게 지내셨다. 몸이 아파서 며칠씩 누워있어도 누가 약 먹을 물 한 그릇 떠다주지 않았다. 그리고 가난했다.

신중한 할아버지는 꽃동네에서 십여 년을 살다가 나와서 가마골로 들어와 혼자서 살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은 골수염으로 오른 쪽 다리를 절단한 채 구걸을 하면서 지내다가 꽃동네에 들어가 사셨다. 그러나 불편하고 힘들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꽃동네를 나와 가마골에 와서 살게 되신 분이다.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가 보니 허름한 빈집을 빌려서 살고 계셨다. 방과 부엌에는 아무런 가구도 없고 휴대용 가스렌지로 밥을 해서 반찬도 없이 잡숫고 계셨다. 나는 냉장고, TV, 가스렌

지, 서랍장 등을 구해 드리고, 김치와 밑반찬을 해다 드리면서 그 할아버지와 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할아버지 집 앞에 작은 다리가 놓여 있었다. 도랑을 건너가도록 놓여진 다리였다. 그런데 그 다리가 망가져서 장애가 있는 할아버지가 건너다니기에는 위험하였다. 마침 부곡교회에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와 있었는데 그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다리를 든든하게 고쳐드렸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신앙생활을 권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을 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멘'을 하셨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에 잘 나오신다.

신중한 할아버지 외에 시각 장애인인 김덕진 할아버지, 윤분선 할머니, 지옥섭 할머니 등 무의탁 노인들 가정을 수시로 방문하여 비슷한 일을 했다. 그런 일을 하면서 PC 통신 하이텔의 어느 동호회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써서 올린 것이다. 그 글을 읽어본 분들 중 여러분이 무의탁 노인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알려왔고 그렇게 해서 1997년 7월 3일 가마골선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2. 가마골 선교회 사역 소개

가마골 선교회에서 방문하여 돕고 있는 무의탁 노인 가구 수는 34가구로써 주로 황성군 강림면 및 안흥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다.

1) 봉사활동

(1) 반찬서비스: 매월 4-6회 반찬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있다.

(2) 물품 서비스: 냉장고, 텔레비전, 전기밥솥, 세탁기, 찜질팩, 돋보기, 칫솔, 치약, 수건, 내의, 서랍장, 찬장, 보일

러 부품, 문풍지, 의약품, 보청기, 허리보호 벨트, 안경, 가스 렌지, 성경, 찬송, 신앙도서 등 필요한 물품을 구해 드리는 일.

(3) 생일축하: 생신을 맞이한 노인들을 찾아뵙고 생신 상을 차려 드리거나 선물을 드리는 일.

(4) 의료 서비스: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약을 사다 드리는 일.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병원비를 내드리고 보호자 역할을 해드렸다. 원주 기독교병원 가정간호학과와 협력하여 매월 1회 정기 검진을 하고 있다.

(5) 집수리: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해 드리는 일.

(6) 명절날 찾아뵙기: 명절 때가 돌아오면 선물을 준비해 찾아뵙는 일.

(7) 어버이날에 찾아뵙기: 어버이날에 찾아뵙고 선물을 전하고 꽃을 달아 드리는 일.

(8) 생활비 보조: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도와드리는 일.

(9) 수시로 방문해서 말벗 해 드리기: 특별한 일이 없어도 방문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일(반찬거리를 봉사자들이 준비해 가서 음식을 마련하여 함께 먹곤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아주 좋아하셨다).

(10) 이 미용 봉사: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가정으로 방문하여 이 미용 봉사를 해 드리는 일.

(11) 청소, 세탁 봉사

(12) 민원 대행 봉사

2) 전도활동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동안 대부분의 노인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다.

3) 방문 활동

- (1) 매주 수요일 정기 방문
- (2) 원주대학 자원 봉사 팀: 월 2회 방문
- (3) 원주기독병원 가정간호학과 간호사 팀: 월 1회 방문
- (4) 원주 의과대학 대학교회: 월 1회 방문
- (5) 기타 생신, 명절, 몸이 아플 때 등 수시로 방문하고 있음.

3. 앞으로의 계획

지금까지 가마골선교회의 사역은 교통이 불편한 시골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해오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다. 노인들의 건강이 악화되어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그분들을 양로원이나 다른 복지 시설로 보내드리곤 했다. 수용시설이 없는 우리로써는 그분들을 돌아가실 때까지 보살펴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시설로 보내드릴 때 참 마음이 아프다. 그 동안 정이 들기도 해서 그렇지만 그분들도 양로원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지 시설도 많지 않아서 보내드릴 곳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 가마골선교회에서는 2002년에 노인 복지 홈을 건립하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하며 보살펴 드렸던 노인들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노인 복지홈에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처럼 함께 지내려고 한다.

4. 맺는 말

지금까지 나는 이 사역을 해 오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한다

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내 이웃에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이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생각되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고 그렇게 한 것뿐이다.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 노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참 많다. 그리고 노인들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또 찾아가면 아주 좋아하신다. 나는 농촌 목회에 있어서 노인들은 너무나 귀한 사역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 이라는 말을 했다. 노인들은 농촌 목회자를 위해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늘 기다려 주고, 반가워하고, 작은 것이라도 고마워하고, 보답하려 하고,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늙고 병든 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 누구보다도 사랑과 복음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들이다.